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10.20(금) ~ 2023.10.26(목)

제공일시 2023 11 03 Fri

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

문의 02 398 7675

# ESG 동향 뉴스 클리핑

이슈 검색기간 : 2023.10.20(금) ~ 2023.10.26(목)

제공일시 2023 11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

##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

### 1. 美·日·EU, 전기차·반도체 보조금 표준 만든다

- 미국과 일본, 유럽연합(EU)이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국제 공통 기준을 마련함
- 각국이 도입을 검토 중인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며, 전기차 보조금 외에도 탈석탄화 실현을 위한 투자와 경제 안보상 중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등이 모두 포함됨
- 유럽의 시장조사업체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(GTA)에 따르면, 2023년 5월 현재 주요 7개국(G7)과 중국이 자국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건수는 총 5만2000건으로 20년 새 2.5배 늘어남.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나라는 중국과 미국으로 각각 5000건과 4000건을 넘음. 나머지 G7 국가들은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1000건을 밑돌았음
- 일본이 반도체·전기차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제 공통 기준 마련을 추진키로 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져 글로벌 무역이 둔화하면 경제도 부진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

(한국경제 2023.10.25) 정영철 기자

### 2. EU, 유해 화학물질 퇴출 계획 '잠시 보류' 논란

- 유럽연합(EU)이 지난 2020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유해 화학물질 퇴출 계획을 일단 접은 것으로 나타남
- 한국을 비롯해 EU발 녹색 무역장벽의 출현에 긴장했던 관련국 기업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전망
-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, EU의 화학물질 규제 행보가 숨고르기에 나선 사실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신규 법안 추진 계획서에서 확인됨
- 유로존 내 환경 분야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유럽환경국(EEB)은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추진해왔던 EU 집행위가 내년에 추진할 신규 법안 목록에서 관련 법안을 제외한 것은,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해왔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함

(글로벌이코노믹 2023.10.23) 김현철 기자

### 3. EU, ESRS 부문별 표준 채택일 2년 연기... 기업 부담 경감 목적

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가 산업부문별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(ESRS) 채택 기한을 연기할 계획임
- 블룸버그 등 외신은 19일(현지시각), EU 위원회가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인 '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' 이행 방침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보도.
- 광업, 농업, 석유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ESRS의 두 번째 표준 세트는 2024년 6월 20일 채택될 예정에 있었으나, 이번 발표로 2년 연기될 예정. 블룸버그는 새로운 보고 지침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기업들과 금융업계의 불만이 반영된 조치라고 분석함
- 비EU 기업, 즉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ESRS 채택일도 연기될 예임. EU 역내에서 거래하는 외국 기업 대상의 ESRS 도입일은 2024년 6월 30일이었으나, 이 또한 2년 연기됨

(인팍트는 2023.10.23) 이재영 기자

### 1. 회계공시 다음은 근로시간개편... '尹노동개혁' 탄력받나

-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안을 수용하면서, 정부가 연말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
- 25일 정부·노동계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를 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며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, 상생임금위원회 권고문 또한 조만간 공개할 방침임
- 정부는 일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근로시간 개편안의 방향을 정한다는 계획임. 상반기 추진 과정에서 '근로시간'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, 유연화하는 내용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큼
-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.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로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, 기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

(문화일보 2023.10.25) 정철순 기자

### 2. 분산에너지 의무 전국으로 확대 추진... 100만㎡ 이상 신규개발사업 등 대상

- 분산에너지 의무 확보 대상 지역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
- 정부는 인천, 충남, 부산 등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, 이들 지역에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함
- 분산에너지 의무 대상도 구체화함. 연면적 100만㎡ 이상 신규개발사업을 하거나 해마다 전력을 20만 메가와트시(MWh)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새로 보유한 사업자는,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전체 전력 소비량의 일부를 반드시 분산에너지로 사용해야 함

(에너지경제 2023.10.24) 이원희 기자

### 3. 환경부, '유엔 플라스틱 협약' 전담팀 운영... 민관합동 대응

- 환경부가 내년 하반기 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에 대응하기 위해, 전담팀을 신설하고 민관합동으로 대응함
- 정부는 '실현 가능성이 있는 협약 제정'을 기본 원칙으로 협약 제정 및 이행에 기여한다는 계획임
- 이를 위해, 환경부·외교부·산업통상자원부·해양수산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환경부 내 협약 전담 대응팀을 운영함. 또, 분기별로 산업계 협의체를 운영해, 협약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로 함
- 정부는 제조·생산부터 순환이용성 강화와 일회용 플라스틱·포장재 규제 등 '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조항' 신설은 지지하되,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재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설정과 PVC 등 특정물질 일률 규제 조항 신설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함

(뉴스스 2023.10.19) 고희주 기자

### 4. "기업 자금조달 시장 달라져야"... 대한상의, 직접금융 규제완화 요구

- 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식·채권 등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-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대한상의)는 25일 '민간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' 연구를 통해, 민간기업(비금융기업 중 공기업 제외)의 올해 상반기 자금 조달 규모가 80.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.6조원 줄었다고 밝힘
- 기업의 자금조달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금융기관 차입액의 변화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함

(머니투데이 2023.10.25) 이재윤 기자

### 1. 美석유공룡의 유전 쟁탈전… 기후변화에도 화석연료 투자 자신감

- 미국 대형 석유업체인 쉘브론이 23일(현지시간) 헤스 코퍼레이션을 530억달러(약 71조1500억원)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함
-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에도 미국 대형 석유기업들은 화석연료 수요가 견고할 것이라는 배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
- 이번 계약에 따라, 헤스 주주들은 보유 주식 1주당 쉘브론 주식 1.025주를 받게 됨. 쉘브론은 "헤스 인수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하고 다각화할 것"이라고 설명함

(한국경제 2023.10.24) 신정은 기자

### 2. "렉서스도 슈퍼차저 쓴다" 토요타, 북미 전기차 충전 방식 NACS 도입 결정

- 글로벌 자동차 업계 1위인 토요타가 북미 전기차 충전 방식에 테슬라 '슈퍼차저' 기술을 적용기로 결정함
- 2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, 토요타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테슬라의 독자적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표준(NACS)을 채택하기로 합의함
- 토요타는 기존 CCS 장착 전기차도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NACS 어댑터를 제공할 계획임

(지피코리아 2023.10.21) 김기홍 기자

(딜라이트 2023.10.21) 박피터슨 기자

### 3. 아마존, 물류창고에 '인간형 로봇' 투입… 노조 "감원 목적" 반발

- 아마존이 물류 창고에 인간형 로봇을 투입해 성능 테스트에 나섬. 아마존은 인간을 '대체'하는 것이 아니라 '협업'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지만, 노동조합은 직원을 더 줄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함
- 22일(현지시간) BBC, 니혼게이지 등 외신에 따르면, 아마존은 지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미국 시애틀 물류창고에 로봇 5000기를 배치함. 이 창고에서 일하는 약 1600명의 직원 수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규모임. 대부분 로봇이 카트 또는 인간의 팔과 비슷한 형태임
- 다만, 일부는 이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임. 미국 로봇 전문 스타트업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개발한 '디지'(Digit)이라는 이름의 휴머노이드로, 아마존은 이 제품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

(이데일리 2023.10.23) 방성훈 기자

### 4. 세계 최초 '수소 100%' 가스터빈 운전 성공했다

- 세계적인 에너지 기술 기업인 지멘스에너지가 주도하는 하이플렉스파워 컨소시엄(HYFLEXPOWER Consortium)이 전 세계 최초, 수소 100%로 산업용 가스터빈을 성공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힘
- 이를 통해, 하이플렉스파워 컨소시엄은 수소가 유연한 저장매체로 활용될 수 있고 기존 가스터빈의 연료로 대체가 가능함을 확인하며,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함

(에너지데일리 2023.10.25) 송병훈 기자

### 5. "애플, 부랴부랴 생성형 AI 제품 개발"…내년에 시리 등에 탑재

-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이르면 내년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자체 제품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(현지시간) 보도함
- 애플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(MS), 아마존 등 경쟁사보다 생성형 AI 개발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
- 애플은 우선, AI 음성 비서인 시리(Siri)와 메시지(Messages) 등에 생성형 AI를 탑재해, 사용자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

(연합뉴스 2023.10.24) 김태중 기자

## 1. 현대건설, 재생에너지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 착수

- 현대건설은 최근 인천남동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힘
- 인천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, 현대건설(발전 인프라 구축)·KT(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)·유호스트(고효율화 설비 구축)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함
- 이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발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총괄 리더로서, 인천 내 유수의 태양광 회사인 JH에너지·원광에스앤티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·운영,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담당함
- 이번 에너지자급자족사업에 현대건설은 산업단지 최초로 '온사이트 PPA(On-Site PPA)' 거래방식을 도입함. 현대건설은 인천남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으로부터 임대한 공장 지붕에 7.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, 생산된 전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임

(스카이데일리 2023.10.22) 정도현 기자  
(인더스트리 뉴스 2023.10.21) 이권오 기자

## 2. LS-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, 기업결합 승인... 밸류체인 구축 박차

- LS그룹의 이차전지 소재 분야 진출을 위한 신규 법인 'LS-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'(이하 LLBS)이 국내외 정부 당국에서 설립 승인을 받고(주)LS의 자회사가 됨
- 이에 따라, LS는 새만금 전구체 생산 공장과 설비 설계, 전문 인력 채용 등에 탄력을 받아, 당초 수립했던 2026년 초 초도 양산 계획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
- LLBS는 이차전지 소재인 전구체 공장을 새만금 산단 5공구(33만8천㎡)에 연내 착공해 2026년 양산에 돌입한 뒤, 지속적인 증산을 통해 2029년 12만t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임
- LS그룹은 LS MnM, LLBS 등을 통해 황산니켈, 전구체,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체인(가치사슬)을 구축함으로써,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임

(연합뉴스 2023.10.24) 장하나 기자

## 3. 삼성SDI의 '큰 그림'... 유럽 프리미엄 전략 본격 가동

- 삼성SDI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, 유럽시장 프리미엄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
- 24일 업계에 따르면, 삼성SDI는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유럽향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함
- 7년 간 배터리 공급 규모는 전기차 5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물량으로, 이를 환산하면 연간 약 1조원 내외, 7년 간 7조~8조원 가량의 배터리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됨

(미디어펜 2023.10.24) 조성준 기자  
(매일경제 2023.10.24) 송민근 기자

## 4. SK·한화의 `친환경` 연합... 업계 첫 선박용 ESS 액침냉각 개발

- SK엔무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잡고, 업계 최초로 선박용 에너지저장장치(ESS) 액침냉각 기술 개발에 나섬. SK엔무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'선박용 액침형 ESS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힘
- 양사는 이번 업무 협력으로 선박용 ESS 액침냉각 기술 개발과 국내외 선급 인증 확보를 통해, 선박용 ESS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임
- SK엔무브는 고품질 윤활기유를 활용한 액침냉각 시스템 전용 플루이드를,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리튬전지체계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용 ESS 시스템을 맡아 기술 개발에 나섬

(디지털타임스 2023.10.25) 박하나 기자

## 5. LG엔솔, 美 애리조나서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 생산

-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신규 원통형 공장을 4680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46 시리즈(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) 핵심 생산 거점으로 키움
- 여러 완성차 고객들이 46 시리즈 제품 채택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, 당초 27GWh 규모로 2170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수정함
- '마더 팩토리'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구축 중인 46 시리즈 파일럿 라인의 경우, 내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임

(전자신문 2023.10.25) 정현정 기자

# Weekend ESG Insight

이슈 검색기간 : 2023.10.20(금) ~ 2023.10.26(목)

제공일시 2023.11.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.398.7675

## 미국, 전력망에 사상 최대 투자... 35억달러 투입된다

- 1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전력망 강화를 위해 35억달러(약 4조7481억원)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함. 이번 투자는 2021년 제정된 초당적 인프라법에 의한 것이며, 전력망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직접 투자임
- 전력망 개선 및 확충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과제임. 미국의 경우, 기존 전력망이 노후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복잡함. 대부분의 미국 전력망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건설됨. 백악관에 따르면, 현재 미국 전력망의 70% 이상은 설치한 지 25년이 넘음
-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난까지 겹치면서 전력망의 취약성은 더욱 높아짐. 미국에너지정보청 데이터에 따르면, 2021년 미국 전력 소비자들은 평균 7시간 이상 정전을 겪음. 7시간 중 5시간은 허리케인, 산불, 눈보라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극한 날씨 때문이었음
- 이러한 상황에서 18일(현지 시각)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상 최대 투자 계획을 발표함. 미국 전력망을 확장 및 개선하기 위해 44개 주에 걸친 58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, 민간 투자자들과 함께 80억달러(약 10조8664억원)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임
- 프로젝트들은 전반적인 전력망 확충 및 개선을 포함해, 자급자족이 가능한 마이크로그리드(소규모 전력망) 구축을 목표로 함. 상위 전력망으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예비 전력으로 전환, 소비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임
- 미 에너지부는 중서부 7개 주에 걸친 5개 신규 송전선 등 여러 대규모 송전선 개발 사업도 지원할 예정임. 외곽에서 생산된 청정에너지를 인구 밀집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서임
- 에너지부에 따르면, 이번 프로젝트들은 풍력, 태양광 등 35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을 송전망과 연결하고, 400개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지원하게 됨
- 사업의 75% 이상은 국제전기노동자조합(International Brotherhood of Electrical Workers union) 과 파트너십을 체결,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도 기여함

(인팩트는 2023.10.20) 이재영 기자